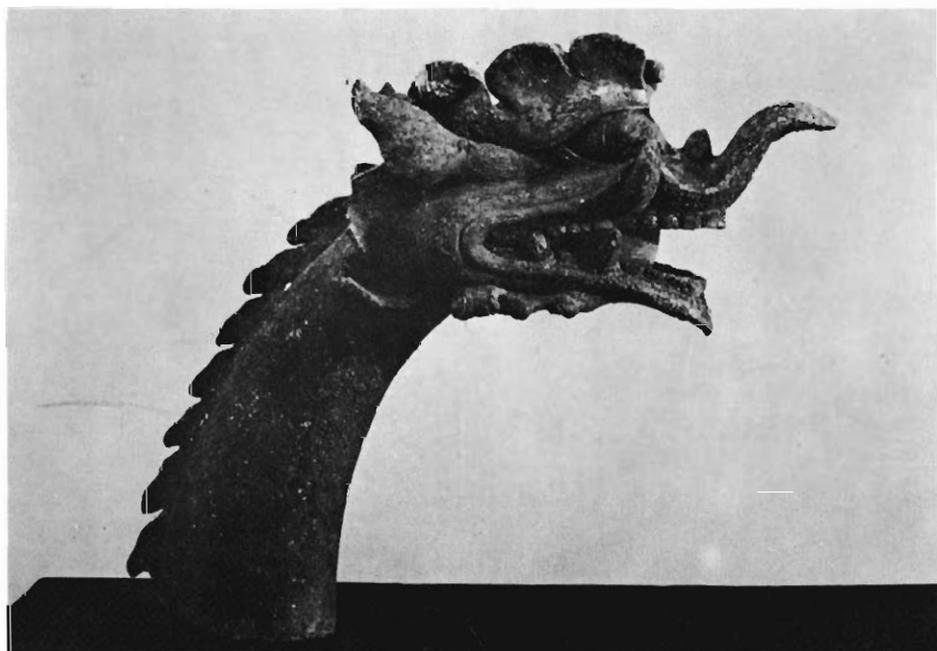


速記界

第 28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速記界

1988- 28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권두언>

선진한국을 향하여 자신과 패기를!회장 박권홍 · 6

/이임사/

변화에 대비를전임이사장 신세화 · 8

/신임사/

새 협회상의 정립을 위하여이사장 김인영 · 11

— 특 별 기 고 —

속기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강성위 · 14

— 작 담 회 —

속기업무용어집을 만들고18

신세화 김인영 조우석 조영기

신건현 안기철 이승철(사회)

알립니다 26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속기요금안내 27

제37회 인터스테노총회

참 관 기이정구 · 28
 총회일지외국어부 · 32
 인터스테노약사..... 카알구출러 · 38

-기행문-

남미풍경김영선 · 40
 동남아기행박광택 · 45

-수필-

가을 고독 그리고 나배영수 · 52
 속기 만감이미정 · 53

속기계 이모저모섭외부 · 56
 편집을 마치고58
 회무일지59

표지그림 / 金銅龍頭竿首飾 (통일신라시대)





선진한국을 향하여

회장 박 권 흠

친애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 하고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987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6·29노태우 선언에서부터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한 정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국제수지 흑자폭이 100억에 이르는 그야말로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대망의 88서울올림픽이 열려서 우리나라가 선진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힘찬 계기가 눈 앞에 닥쳤고 또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 보는 평화적 정부이양의 기록이 마침내 오는 2월 25일 우리 눈 앞에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입장에서 그야말로 뜻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88년은 아마도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더 크고 우리들의 손자취가 역사 속에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금년에 보낼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엔 4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속기협회를 보더라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또 우리 대한속기협회의 국제적 지위도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인터스테노회의에 이 사람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동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새해에는 여러분이 걱정을 해 주셔서 4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금년 인터스테노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람이 별을 하나 더 달고

자신과 패기를 !

인터스테노회의에 나가서 우리나라 속기문화의 국제적 지위를 다시 한번 드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국제수지의 흑자가 늘어나고 88서울올림픽 등 선진국이 되려고 하니까 해마다 대하는 여러분의 얼굴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더 검어지고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젊은 동지들의 패기에 넘친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 우리나라 국력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새봄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공치사의 인사가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그런 자신과 패기가 넘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회장인 이 사람도 더욱더 용기가 백배하는 기분으로 이 시간 이후 열심히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속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한 해 동안 더욱 더 건강한 가운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2월 9일, 제21회 정기총회에서)





변화에 대비를

신 세 화

(전임 이사장)

어느덧 우수 경칩이 지나고 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에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양식 중의 하나로 김장을 담그어 겨울에 대비했고 이제는 해동으로 입울지도 모르는 피해를 걱정하여 독이나 제방을 둘러보면서 다가오는 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계절의 변화를 알고 항상 한발 앞서서 이에 대비하여 피해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기계에 주어지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는 분명히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적 영향으로부터 우리 속기제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만 우리 속기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속기계의 지나온 공과는 덮어두고 새롭게 예

상되는 변화에 대처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국제화 추세의 확대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88서울 올림픽, 대중공교역을 겨냥한 서해안 시대의 도래, 동구권과의 직접교역의 대두 등 국제화 추세의 확대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제회의의 증가는 이의 기록을 위한 영어속기 수요의 확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으로서 영어속기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고급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흡하나마 지난 해에는 본 협회에서 영어속기 무료강좌를 1년간 개설하고 영어속기 관계 자료를 적극 수집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속기능력자 배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무의 자동화 내지 기계화 추세입니다.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 등 일상 사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나 미국이나 유럽의 예를 보면 속기도 수필속기에서 기계속기로 그리고 속기번호의 기계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우리의 연구개발 노력이나 실적은 아직도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본 협회에서도 연구와 자료수집을 게을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의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의 혼용에 따른 난점, 한글 구조상에서 오는 기계화 과정의 난점 및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수요와 인식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된 정보의 제공과 보존 그리고 폭넓은 보급을 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룩해 놓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민주화에 따른 증거자료로서의 기록의 중시추세입니다.

속기의 수요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란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을 그 특징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의 기록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후 증거 기능까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

시 증언의 녹취록이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와 각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의 증가 등으로 속기의 수요가 두드러지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수반하여 일기, 대화, 메모 등 일상생활속기를 위한 속기강좌의 개설도 요구되며 특히 앞에서 열거한 각종 주요분야의 기록업무를 담당케 할 고급 속기 능력자의 양성은 더욱 시급한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의 조직의 활성화와 기금의 조성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국회속기사 양성소 및 각 사설학원에서 속기 교습을 해오고는 있으나 속기기술과 아울러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교양도 함께 교육하는 체계적이고 차원높은 속기사의 양성 및 교육제도로의 탈바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협회 조직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속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에 바탕을 두고 보다 나은 속기법을 연구, 개발, 창출해 내야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회원들의 회비와 일부 찬조금으로 협회의 재정을 꾸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써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기계속기의 개발, 속기번호의 기계

화, 속기수요처의 개발 및 속기교육의 제도적 개선, 속기회관의 건립 등이 속기협회가 추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우리 스스로 인식이 되어 졌다고 볼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금 조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이 기금조성을 위하여 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별써 제주도에는 유채꽃이 피었고 남부지방에서는 산수유가 꽃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니 곧 봄은 전국적으로 시작될 모양입니다. 본인은 우리 속기계에도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협회운영에 협력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협회업무에 수고해 주신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입법조사관)

* * * * *

소매치기 대여섯이 둘러앉아, 여기저기서 소매치기해 온 물건들을 나눠가지는 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두둑한 돈지갑이 보이질 않았다.

『이거 이상한데, 이 중에 손버릇 나쁜 놈은 없을텐데 말야.』

* * * * *

침 놓는 연습을 하려고 이웃집 머슴을 붙잡고,

『술 한 되 받아줄테니 침 좀 맞게』

이윽고 은(銀) 침을 한 대 놓고 득의 만면하여,

『자아, 뻘다!』

하고 뿔으려니 도무지 빠져야지. 한침을 애쓴 끝에,

『이 침은 비싼 거지만 널 주겠다.』

새 협회상의 정립을 위하여

이사장 김 인 영



1988년은 한국속기사에 있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노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언론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속기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성실히 실천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치고 속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속기사가 대우 받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속기인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분야의 속기를 하든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폭넓은 실력배양에 힘써



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협회의 발전을 통하여 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속기계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미 10여년 전에 (78~79) 이사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제가 다시 이사장직을 맡고 보니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기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협회를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협회활동을 점검하고 그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거의 연례행사로 치러지고 있는 속기인 체육대회를 보다 알차고 실속있는 대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선후배 상호간의 폭넓은 친목도모의 장이 되도록 하고,

둘째는, 매년 예산에만 계상해 놓고 실시되지 못한 속기경기대회를 속기인의 실력 향상과 속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되, 지난 대회까지의 여러가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문속기사와 비전문

속기사의 연령별 경기대회 등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셋째는, 속기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방학강습을 협회가 직접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질적으로 속기인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타자나 주산과 마찬가지로 속기 역시 가점을 인정 받도록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넷째는, 국제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속기 선진국의 첨단정보를 신속히 입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현재 한국속기계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속기교육의 내실화 문제입니다.

곧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당장에 많은 수의 속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그것을 감당해 낼 만한 속기사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를 기회로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부 학원의 과대광고 행위와 「속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에 편승하여 한 몫 보려는 속



셈으로 허황된 광고행위를 일삼고 있음은 실로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학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회원들께서는 양심적으로 후진양성에 힘써야 하겠거니와 협회로서도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속기사양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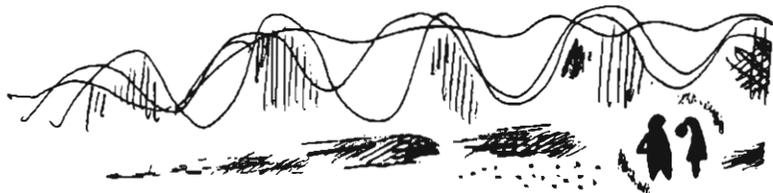
둘째로, 중요한 문제는 속기협회의 단일화 문제입니다.

명실공히 한국속기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속기협회입니다. 갈라져 나간 단체나 개인들은 모름지기 대한속기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총집결함으로써 한국 속기계의 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적극 참여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화 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제가 평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회의 기존 사업들을 보완개선하여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면서 한국속기계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민주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 함께 새 마음, 새 정신으로 새로운 속기인상과 협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속기까지 가르치는 국어교육이 필요하다.

강 성 위
(의대교수, 철학)

나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다. 명색이 대학교수요, 그것도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글을 써놓고 나서는 맞춤법에 자신이 없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글을 처음 배우는 과정인 국민학교를 일제시대에 다녔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 글을 배우지 못했다. 해방 직후에 중학을 다니고 6.25의 격전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역시 우리 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또 내가 학교교육을 받던 시기에는 사회만 혼란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글도 매우 혼란했던 시대였다.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획기적인 반성이나 노력이 없이는 앞으로도 이 혼란을 이겨내기가 힘들 것같기도 하다. 왜냐 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완전히 통일된 어문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여간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어를 교육하는 데도 의견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중고등학교의 국어 수업 시간에서부터 알력과 갈등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들 한다.

사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나, 탄생 직후부터 「꾸어다 쓴」글자에 중독되어 민족혼까지 잃어 버린 일부 고루한 사람들의 끈질기고 무자비한 탄압과 천대 때문에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완전히 말살되는 알곳은 운명마저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글은 500년이 넘도록 완전히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국어학을 전공하는 모든 학자들이 「한글전용」이다 「국한문혼용」이다 또는 전문적인 학술논쟁이나 문법논쟁등에 전념하는 일쯤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나, 이런 전문적인 학술논쟁에만 몰두

기제는 받아 적는 것이 있어야만 쓰임새가 있는 제2차적인 장치라 할 수 있고, 받아 적는 것은 기제를 쓰임새 있게 해주는 제1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일상생활과 젊은이들의 학교교육에 필요한 어문정책은 하루 속히 통일시켜 우리의 어문생활을 현대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우리 말과 글의 현대화라 하면 맨먼저 「기계화」 즉 타자기나 컴퓨터등을 연상할 것이다. 사실 이런 기계화는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고, 잘 교육하기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실업고등학교등에서는 취미나 자기 자신만이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타자를 가르치고 배우기도 한다. 현재 글자의 기계화 덕택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기계들은 원고를 쓰거나, 문서를 기안하거나, 출판이나 복사를 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어진」 원고는 잘 처리해 낼 수 있으나 남의 말을 받아 적는 데에는 알맞지가 못하고, 받아 적은 것을 기계로 처리해 낼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기제는 받아 적는 것이 있어야만 쓰임새가 있는 제2차적인 장치라 할 수 있고, 받아 적는 것은 기제를 쓰임새있게 해주는 제1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자를 쓰는 것이 역사생활과 문자생활의 첫 번째 단계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쓰기」란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글자 쓰기가 아니라 소위 「속기」 즉 「빨리 받아 적기」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말한 어문 정책의 혼란 때문에, 이 글자의 기능을 잘 발전시키거나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우리 말과 글의 현대화는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라 바로 「빨리 받아 적기」로서의 속기다. 다시 말해 국어교육을 잘 하려면 학교에서 속기교육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다.

몇몇 발전된 외국의 예를 보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속기까지 배운다. 그래서 대학생들, 특히 고급학년의 대학생들이나 학자들 또는 많은 지성인들 중에는 속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속기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속기란 남의 말을 빨리 받아 적는 것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세미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거의 모두가 속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서 연사의 양해를 받아 녹음기를 가져다 댈다.

이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교수나 연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강의나 세미나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서 오해가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의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 보면, 교수나 강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지 못하여 뜻밖의 오해가 생기거나, 연사가 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질문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질문을 받은 연사도 질문자의 장황하고 조리없는 질문을 미처 받아 적지 못하여 <동문서답>이 되는 일이 허다하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도 세미나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거의 모두가 속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서 연사의 양해를 받아 녹음기를 가져다 댈다. 이 녹음은 어떤 면에서는 속기보다 더 정확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녹음은 다시 글로 옮겨져야 인쇄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따라서 「받아 적는 일」이 없어서는 안되고, 결국은 속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번거로움만 가져다 주게 된다.

그러니 보다 더 일을 간단히 처리하자면 서양에서처럼(속기·타자수)가 제격이다. 세미나는 물론 회사나 기타의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다가 타자를 치면 훌륭한 문서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양 신문들의 구인광고란을 보면 소위(스테노·타이프리스트)(속기·타자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들 중의 하나다. 속기를 하면 녹음도 필요 없고, 녹음을 「풀어 쓰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속기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나 이미 때가 늦은 것같이 시작할 엄두를 못 내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속기를 배우라고 권하는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권유를 하면 대개는 우리나라에는 속기를 배우도 써먹을 곳이 없다고들 답한다. 또 속기를 해 봐야 국회에만 몇 명의 속기사가 필요하지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의 보답을 받을 수 없다고도 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해둔 바가 있다. 속기란 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화 학문 사회생활 자체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취직을 위한 전망도 어두운 것이 아니다.

현재 속기사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국회요,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속기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 국민 모두가 속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국어교육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글의 발전의 최후 단계는 속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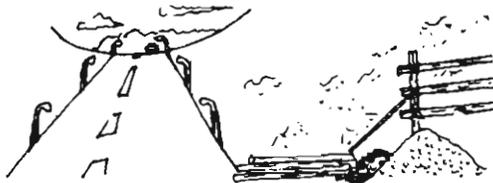
필요한 곳은 언론기관일 것이다. 방송회사의 기자가 아니라 신문사나 잡지사의 기자들은 속기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 하면 이들은 남의 말을 받아 적어 세상에 알리는 일이 매일의 생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자면 앞으로 국어교육 즉 속기교육이 잘 되었을 때에는 신문기자들의 입사시험에는 속기가 필수과목으로 뒹직하기도 하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비서를 뽑을 때에도 대개 학벌이나 용모를 중요시하나, 사회가 오늘날처럼 급진전을 하면 머지 않아 속기가 비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기능으로 될 때가 곧 올 것이다. 사장이 편지나 지시사항을 구두로 불러 주면 받아 적어야 할 사람은 바로 비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장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 이외에도 속기가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언어 선진국들에서처럼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속기를 가르친다면 속기교사나 교수로서의 길도 얼마든지 열릴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속기에 종사하고 있고 속기를 보급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속기의 필요성과 그 직업적인 전망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보다 더 손쉽게 속기에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기만 배워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서 속기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쳐 국민 모두가 속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국어교육이 발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글의 발전의 최후 단계는 속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기업무용어집을 만들고

— 참석자 —

申世華(전임이사장)

金仁寧(이사장)

趙隅石(섭외이사)

曹永琦 申建鉉 安基喆 회원

司會 : 李承哲(총무이사)

때 ; 1988. 1. 14

곳 ; 국회속기사양성소교무실

司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8월 우리 속기과에서는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速記業務用語集』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기획과 편집 과정에 참여하여 수고하셨던 여러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速記業務用語集』의 필요성이라 할까 발간에 착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지요.

申世 의회에서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속기사들이 각종 변화하는 모든 낱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한 뒤라

야 속기업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속기업무용어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모든 속기인들이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물론 속기사라면 모름지기 그러한 각종 시사용어나 전문용어들을 자기 지식화해 놓아야 하겠읍니다만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실새없이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용어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리 쓰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노력으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의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한번 집대성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용어집 발간에 착수하

게 된 것입니다. 특히 86년도 비회기 중에 속기과 직원들의 자체교육시 사무총장님께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용어를 정리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최 황수회원이 자기 나름대로 각 회의록에서 용어를 수집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설명을 붙이기 곤란한 용어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87년도 초에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기획위원들과 편집위원들께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좋은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어를 알아야 속기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데 기인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기사들이 이런 용어를 미리 앞장서서 익히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웃음)

◆ 우리 국회가 생긴 지 40년이나 되지만 국회 회의 석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수집하여 책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책이 나와서 여러 차례 수정 증보를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더우기 금년에는 국회 개원 40주년 기념 속기전시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속기전시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



로서도 크게 활용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기획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지요?

◆ 기획 과정에는 속기과의 관리직이 전부 기획위원이 되다시피 해서 수차에 걸친 토론회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 기획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86년도에 시작한 업무가 87년도 중반에 와서야 작품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 기획 과정이라고 하면 높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네요?

◆ 申世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안해 낸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때 속기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 자체교육과 병행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니뭐니 해도 책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이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회의 전문용어집』이라고 하려니까 전적으로 회의에서만 전문적으로 쓰여지는 내용의 단어들 외의 것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속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석상에서 사용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기업무용어집」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게 되었지요. 기획 과정에서

司 용어집을 만들려면 우선 자료수집 과정이 참 어려웠을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趙 전부터 용어수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회의가 끝날 때마다 각 係에서 새로운 용어들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해설을 붙이지 말고 그대로 발간해 보자 하는 얘기가 오고가다가 중단이 된 후에 86년 여름 자체교육에서 사용된 교육용 자료와 회의석상에서 새로 나온 단어들을 모아서 카드화하였습니다. 그때 각 속기사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저기에는 표제어를 쓰고 아는 한도내에서 해설을 붙이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카드가 약 2,000매 정도 되었습니다. 1차 자료수집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직원

들의 협조하에 자료수집이 끝났는데 어찌 보면 자료수집보다는 정리 과정이 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리작업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얘기해 주시지요.

金 자료정리 중 가장 고심한 것은 역시 용어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범위의 것을 수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지요. 왜냐 하면 경륜이 많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임용된 직원들보다 아무래도 의회용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전문적인 면의 숙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위주로 용어를 선정하다 보면 새로 갓 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용어가 나오지를 았았고 또 새로 임용된 직원들의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용어를 수집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로서는 필요 없을 듯한 내용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농수산 분야에 대한 용어를 수집했었습니다만 그것을 학문적인 측면에서 주석을 붙인다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부처나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 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 사람들의 두뇌도 빌리다시피 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농약 관
제용어를 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입니다. 농약 종류가 어찌나 방대하
던지 그만 손을 못 대고 말았어요.

■ 자료를 적어 내 주신 분들이
어느 책을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몰
라도 저희는 참고자료를 구할 수 있
는 한은 다 구해서 공식 비공식 자
료까지 합치면 70여종이나 되었습
니다. 그것의 최대공약수를 구해서
정리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윗게 정의의
내리는 것인지 처음에는 고민도 많
이 했어요. 또 하나는 정리하다 보
니까 농업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용
어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전
도 뒤져보고 청와대 서고도 가보고
체신부에도 가보았읍니다만 어렵기
는 했지만 그런 쪽으로 좀더 뛰었더
라면 더 좋은 용어집이 나오지 않았
을까 생각해요.

趙 자료정리 과정에서 중복된 것
이나 그다지 필요할 것같지 않은 것
을 제외하고 나니까 2,000여 매의
카드 중에서 반도 채 안되는 900개
정도가 채택되었어요. 그것도 특정
분야에 국한해서 해설이 되어 있어
서 그것을 검증하느라고 이 책 저
책 뒤지는데 여기 편집한 분들의 수
고가 많았읍니다.

申趙 저희가 이번에 제일 많이 참
고한 책이 동아일보사에서 나온「현
대시사용어사전」하고 매일경제신문



에서 나온 「경제신어사전」인데 분
야별로는 경제용어가 제일 많이 들
어갔읍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다시
피 했을 정도인데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서고를 다 뒤지면서 사전을 찾
아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전
문사전이라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
럽지 못하다, 가령 「농업대사전」같
은 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전이라
기보다는 그저 단어나 글자의 해석
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읍
니다. 다행히 趙계장님께서 일어를
잘 아셔서 일본사전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계장님들께서 정리해
놓은 것에 큰 도움을 받기도 했읍니
다.

회의장에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
데 해설을 붙이기 어려운 용어도 참
많았읍니다. 앞으로 그런 것만 모아
가지고 자료 정리를 해놓을 필요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은 자료를 써 내주실 때 앞으로를
위해서 어디에서 나왔다는 출처를
밝혀 내주시면 좋겠고, 해설을 붙이
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에서 어떤



어떠한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인용문구까지 적어주시면 나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폐기된 것중에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안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배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외부의 전문용어사전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성격도 다르고 활용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도중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주로 趙계장님 방침대로 편집위원들의 토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책을 탄생시켰다고 하겠습니다.

편집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 단어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자음에서 「빨치산」의 경우 이 단어의 위치를 어디에다 넣어 주느냐, 그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민중서관에서 나온 「엡센스 국어사전」에는 「ㅂ」항이 다 끝나고 나오는데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에는 「빨」항이 끝난 다음에 「빨」항이 나와 있거든요.

申建 용어를 취사 선택하는 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참고자료를 내 주신 분들의 자료를 보면 뭐 이런 것을 넣었나 싶은 단어들도 있고 실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용어집에 넣기는 곤란한 것도 있고...

趙 그렇지요. 아까 金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용어선택의 기준을 어느 선에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중간선으로 잡아야 되느냐...

司 우리가 책자를 보고 느낀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너무 수준이 높게 어려운 단어만 선정한 것이 아닌가, 속기 업무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자면 갓 속기사가 된 분들한테 우선은 필요한데 이것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된 것같은 감이 들었습니다.

趙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문용어라고 실었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런 것은 안 실었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어느 선에 그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카드로 써낸 것을 전부 실어야 되느냐 거기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안 저희들이 작업할 때 도중에 몇 번인가 위문을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음료수와 과자같은 것을 사오셔서 고생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일하는 보람이 있었지요. 책만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분들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구나 하고.

■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니뭐니 해도 시일이 너무나 촉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 보다 알찬 내용의 책이 나왔을 텐데 저희들이 욕심은 내면서도 못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명이라든지 인명 이런 것까지 저희는 욕심을 냈었는데 너무 시일이 부족했고 편집인원도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다시 용어집을 낼 때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司 그 외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숲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지(일동 웃음) 그러니까 여러가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일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선정의 기준 때문에 애로를 겪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安 국어사전이나 일반자료로써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빼고 앞으로 활용될 만한 것하고 또 알면서도 혼동되기 쉬운 용어들, 한자표기상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많이 살



렸습니다. 항상 토론을 하면서 용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의 문서같은 것은 없습니다.

■ 우리 용어집은 경제학이면 경제학, 농업이면 농업 이런 전문용어집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경제학 농업 통상관계 등등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썼습니다.

趙 용어의 해설은 이론적인 해설을 피하고 가급적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간단명료하게 했습니다.

이론에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그럴 만한 시간과 인원의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용어 하나 선택하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책 한 두 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책을 비교하면서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 검증하는 데 보통 서너권 정도의 책이 필요했습니다.

安 英字略語에 있어서도 영어 뜻풀이가 가능한 것은 그대로 실었고 또 일반 용어의 분량에 비례해서 略語의 분량도 어느 정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뜻풀이가 잘 되지 않고 약어로만 수집한 것은 다음 번 작업을 위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회의록용어집을 보면 간단한 뜻풀이 활용등으로 나타나고 어떤 단어는 아예 사용되는 분야만 표시하고 해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편집을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趙 일본 국회의회의록용어집에서는 해설이 안되는 경우에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체 배제시켜 버렸읍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폐기시키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준비과정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부록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손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우리가 속기업무에 증사하면서 보면 인명 지명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하나도 못했어요.

書 사실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집이 되려면 역대 회의록을 갖다 놓

고 많이 나오는 것, 또 누가 들어도 잘 모르겠다 싶은 단어들을 발췌해서 그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인용문구만이라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편찬을 것 같아요.

安 나중에 교정작업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 속에서 컴퓨터 인쇄로 초고를 보는데 일반 서적과 달리 이것은 한 단락 한 단락 끊어지기 때문에 인용부호를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나중에 점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보아도 잘못 나온 것인지 또는 제대로 나온 것인지 자주 신경이 쓰였습니다.

趙 교정할 때 보면 회의록에서 찾아낸 용어의 漢字가 맞는지 틀리는지 분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 놓고 나면 혹시 원래의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고쳐 놓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도했고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주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보판이 자주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고칠 것은 고치고...

申 그렇게 하려면 課 자체내에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연구 내지는 보완작업이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安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課員들이 이 책을 꼭 필요할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꼭 훑어 보시면 속 기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申 建 사실 미흡하기는 해도 우리 업무상 필요한 용어는 상당히 카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서인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같은 인상도 듭니다만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는 1차적으로 이 책부터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 처음에 이 책을 만들 때에 課外에까지 배부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완전히 내부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가서 이것을 사무처에 배부해야 된다, 과장 이상은 한 권씩 주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무관 이상은 한 권씩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책 내용도 문제고 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課 내부용으로만 만들었다더라면 만들기는 더 편했을 것입니다.

■ 앞으로 보완작업을 할 때는 국어학자라든지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趙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대외 시판용이라면 몰라도 예산과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아



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방향이 달라져요. 다음에 보완작업을 할 때는 외부 영향 없이 처음 의도대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司 이제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 용어집을 수정·보완해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겠는가, 한 마디씩 해 주시고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용어집을 만들 때에는 실무 경험이 오래되고 회의용어에도 어느 정도 밝으신 선배님들께서 적극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趙 증보판이 되든 개정판이 되든 앞으로 과원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메모를 해 두셨다가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상세한 설명을 붙여서 카드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맡아서 하든 충실한 용어집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급조해서 이것을 만든다면 작업하는 사람도 상당히 애를 먹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

다.

安 저희들이 막상 필요한 것은 실제 회의장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어디에서 찾아 보아야 할지 막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 권으로 묶어서 정리를 해 놓았을 때 실제 업무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이라면 백과사전식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연도하고 산 이름같은 것이 다 들어 있고 우리 나라의 산업시설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회의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司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어려운 과정에서 참으로 훌륭한 책자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용어집은 그야말로 우리 속기사들에게 있어서 백과사전

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국민학교 학생부터 대학교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적은 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또 어느 정도 외부영향을 받고 하다 보니까 수준이 애매하게 된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보다 훌륭한 용어집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우리 속기인의 백과사전이 될 수 있도록 수정·증보해 가는 데 전 속기인들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립니다—

○속기인 주소록 발간

1985년에 발간한 바 있는 속기인주소록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오니 주소 및 연락처(전화)의 변경이 있는 회원은 섭외부(788-2476 홍기표, 788-2375 정주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입 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우편대체구좌를 마련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구좌번호 : 532689 (회비1년분 : 12,000원)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국어 및 영어 속기관계자료, 학습, 청탁등 속기에 관한 모든 문의는 본 협회섭외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오니 회원제위와 속기에 관심이 많은 분은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Counsellor) : 본협회섭외부 Tel 788-2475, 2476

속기요금안내

1982. 5. 1시행

속기 기본료	1 시간 당	100,000원
녹음 재생	"	110,000원
전문분야	"	130,000원
외국어속기	"	150,000원
요점속기	"	8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제37차 인터스테노총회

참 관 기



이 정 구

87년 7월 10일, 이태리 로마.
어제는 자다가 다리에 두 번씩이나 쥐가 나는 바람에 잠을 설쳐야만 했다. 하긴 이곳까지 장장 20여 시간을 꼬박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 그럴 법도하다. 한데 동행하신 김인영이사께서는 너무나 편안히 주무셨다니 뭐가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Firenze로 가는 비행기는 오후에 있기에 밖으로 나왔다. 역시 Rome는 Rome였다. 이곳 저곳을 봐도 유적이요 조각품이니 도시가 그대로 박물관이었다.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직접 보니 느낌이 또 달랐다. 오후에 소나가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다. 소나는 한국여자인데 이곳에 온 지는 4년쯤 된다고 했다. 어제 공항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가 보다.

Firenze로 가는 비행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여서인지 곧 떨어질 것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올 때 보험

에 들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다 보니 착륙중이었다. 36차 대회였던 불가리아의 소피아대회 참관기를 수도 없이 읽어 보고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상상하며 내린 그곳은 마치 서부영화에 나오는 어느 한적한 시골역같이 초라하였다. 안내원도 버스도 그 혼한 환영 플래카드도 한 장 붙어 있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Radio Taxi라고 쓰인 차를 탈 수 있었다. 유럽식 사고방식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인지 올림픽준비에 열심인 우리네 방식에 젖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해부득이었다. 또한 떠나기 전부터 고민을 한 짧은 영어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랄까 아마 그 곳에는 제2외국어라는 과목이 없는 듯 싶었다. 한번은 버스를 잘못 타서 전혀 낯선 종점까지 가게 되었다. 운전기사는 말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우리는 내리찍는 7월의 땀벌 아래서 30여분을 기다려서야 되돌아올 수 있었다.

87년 7월 11일 Firenze

총회 개최식이 베치오(Vecchio) 궁전에서 있었다. 궁전 내부는 사방이 모두 벽화와 조각품이었으며 천정까지도 성화가 그려져 있어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미켈란젤로가 왜 목이 휘었나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도 당연한 것이 Firenze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서 중세유럽에서 제일 번성한 인문예술의 도시가 아니었던가.

개회식은 30개국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Toscana지방장관의 환영사와 이번 대회의 의장인 로드리게스의 축사 그리고 중앙위원들의 각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이 있었다. 사정상 이곳에 오시지 못한 박권홍회장님을 대신한 김인영이사는 한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태리측의 수고와 환영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88서울올림픽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하겠다고 하여 대회장을 가득

메운 박수를 받았다. 반면에 개최식의 진행은 거의 모두가 이탈리아, 독어, 불어로만 통역되어 우리는 그저 눈치로 회의상황을 알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사정은 여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급기야는 미국대표인 해리 포스터가 이를 항의한 것은 같은 처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느껴질 지경이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새삼 느껴보는 밤하늘의 별이었다.

87년 7월 13일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타자경기대회와 속기경기대회였다.

그중 속기경기대회는 Pieraccini라는 학교에서 열렸는데 참관을 못하게 하여 숨바꼭질을 하듯 여기저기를 열심히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대회는 각 언어별로 분리하여 실시되었는데 감독관이 육성으로 낭독

* * * * *

아내의 잔소리에 기를 못 쓰는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말했다.

『내 아내가 1년 중 가장 적게 말하는 달은 2월이야, 2월.』

『2월에는 목이라도 부어 오르는가?』

『아닐세, 아니야. 2월은 1년 중에 날짜가 제일 적은 달이잖나?』



하면 참가자는 기계속기나 수필속기로 받아적이고 번문은 다른 교실로 옮겨서 수필하는 방식이었으며 경기 시간은 10분이었다. 또한 모국어와 다국어로 나뉘어지고 다시 A그룹(전문그룹)과 B그룹(비전문그룹)으로 나뉘어져 모국어 A그룹에서는 불가리아의 아니 아미야노바(Anni Armianova)양이 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는 불가리아 동독 동 동구권이 휩쓰는 가운데 우리는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 말을 컴퓨터를 통해서 편집까지 끝내는 일괄처리시스템의 개발은 언제쯤일까 하고 잠시 공상에 빠져든다.

87년 7월 15일

이번 총회의 본부가 있는 아파리(Affari)궁에서 연구논문발표가 있다. 인터스테노 100주년 기념이 되는 이번 대회는 100년간의 속기, 타자, 사무기술의 발전 등 지난 100년간의 속기에 대한 총결산을 연구 보고하는 셈이다. 연륜이 깊은 만큼 각국 주제발표자들의 발표태도는 진지하기만 하다. 동시통역으로 주제발표를 듣고 있던 중 본부에서 텔레스가 왔다는 전갈이 있어 내려가 보니 김인영이사의 진급 축하전문이 아닌가. 덕분에 전화국을 찾느라고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내 일처럼 기쁠 뿐이다.

저녁에 있었던 참가자 모두를 위한 만찬은 회원들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서독과 이스라엘에서 온 참가자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우리는 1분당 300자를 쓴다고 하니 모두 놀라는 눈치였다. 하긴 字를 syllable로 얘기를 했으니 그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지난한 일이라 본의 아니게 한글의 우수성을 과시(?)한 셈이다.

87년 7월 17일

어제로서 모든 공식일정은 끝나고, 오늘 일정은 Siena시의 관광이다.

그 동안 경비를 절약하느라고 숙소도 옮기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나거나 하다 보니 이곳에 정도 들고 여기에 오기 전 미리 사진을 통해 위원들의 면면도 파악하는 등 준비를 하느라고 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다고 느끼니 이제는 떠날 때가 되긴 된 모양이다.

노년이 되도록까지 속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들을 볼 때 경외감까지도 느끼면서 그런 풍토가 부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색창연한 Siena시와 S.Gimignano 마을은 전형적인 중세의 도시였다. 특히 S.Gimignano 마을은

약 3,4세기경에 건설되었는데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그저 아연할 수밖에 없다. 각 언어 권별로 가이드를 따라 다니는데 잠깐 한눈을 팔다 보니 내가 속했던 영어 그룹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할수없이 꼭 집시같이 생긴 여자 가이드의 양해를 구하고서 독어그룹을 따라다닐 수 있었다. 나중에 한 곳에서 만나니 모두 걱정을 하였는데 말썹꾸러기가 어디에 간들 별수가 있나.

87년 7월 21일

창 밖 저 너머로 Alaska 최고의 산인 매킨리봉이 우뚝 솟아 있다.

북극의 백야현상인 듯 가도가도 태양이 지지 않는다.

전면의 스크린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영화장면에는 아랑곳없이 무겁게 닫힌 나의 눈에는 Firenze에서의 바쁘고도 즐거웠던 순간들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제37차 인터스테노 총회



1. 기간 : 1987. 7. 11.(토) - 7. 17.(금) (7일간)

2. 장소 : 이탈리아 피렌체

3. 한국측대표 : ○김인영(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이사·속기과장)
○이정구(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외국어부장)

4. 참가국 및 인원 : 30개국(22개 언어권) 804명

5. 중앙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가. 차기 중앙위원회 개최국 및 시기

○스웨덴 스톡홀름('88. 6. 27-7. 1.예정)

나. 차기연맹총회 개최국 및 시기

○동독 드레스덴('89. 7. 15-7. 20. 예정)

다. 새회장 선출

○Hans Störel(동독)

라. 부회장 선출

○ 동독·핀란드·일본·유고·스페인

마. 새 중앙위원 선출

○한국 박권흠위원(재선)외 14

인, 신규 인도의 5인

바. 신규회원가입

○인도 및 인도네시아 내쇼널 그룹으로 가입

사. 사무총장

○구출러박사(서독)유임

6. 주요활동사항

가. 7월 11일

(1) 1차 중앙위원회 개최(시간: 10:30, 장소: 아파리궁)

1986년도 중앙위 회의록 통과, 1985년도 제36차총회 회의록 배부 및 속기·타자 경기대회에 관한 사항

(2) 개회식

(가) 총회 개회식이 베치오궁에서 약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림.

(나) 투스카나 지방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번 대회 회장인 로드리게스는 환영사에서 모든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회원국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

(다) 이어 24개 회원국 대표들의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박권흠위원을 대신한 김인영이사는 한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이태리의

수고와 환대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88서울올림픽에 여러분을 따듯이 초대한다고 하여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음.

나. 7월 12일

(1) 세계타자경기대회(시간: 08:30-14:00, 장소: Fortezza da Basso 참석인원: 250명)

1위: 불가리아 2위: 동독 3위: 체코

*수동·전동·전자 각 1,2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1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이어서 감독관의 호각신호에 의하여 1~10단계로 진행속도 및 정확도 경기가 있으며 방법은 동일함.

경기시간은 각 30분간으로 속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구권이 강세를 보임.

다. 7월 13일

(1) 세계 속기경기대회(시간: 08:30-16:00, 장소: School Pieraccini, 참석인원: 61명)

1위: 불가리아 2위: 미국 3위: 폴란드

*각 언어권별로 분리하여 실시되었는데 감독관이 육성으로 낭독하고 참가자는 기계나 수필속기로 받아 적고 번



문은 교실로 옮겨서 하는 방식이었으며 참관은 허용되지 않음.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뉘어 경기시간은 10분이었으며 불가리아, 동독 등 동구권이 강세를 보임.

(2) 플로렌스 지방장관 주최 리셉션(시간: 12:30, 장소; Medici 궁) - 플로렌스 지방장관 및 각국 참석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88서울올림픽을 홍보

(3) 로드리게스회장 주최 리셉션(시간: 12:30, 장소; Borghese궁) 각국 중앙위원에 대한 감사장 및 인터스테노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한국은 김인영이사가 수령, 인도 등 아시아권 참가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다짐.

라. 7월 14일

(1) 세계 속기경기대회 다국어 부분(시간; 08:30-12:00, 장소; School Pieraccini, 참석인원; 25명)

* 많지 않은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열려서 1위를 한 동독선수는 불가리아 소피아대회에 이어 또다

시 8개국어에 응시하여 공히 좋은 성적을 얻음.

(2) 제2차 중앙위원회(시간; 16:00-18:20, 장소; 아파리궁)

* 토의사항 *

(가) 회계감사보고

(나) 신규회원(인도·인도네시아) 가입

(다) 1989년 대회에 관한 사항

(라) 임원선출(로드리게스를 명예회장으로 추대)

(매) 분담금 문제는 각국의 의견이 엇갈려 유보키로 함.

(배) 차기 중앙위원회 개최지로 일본과 스웨덴이 경합하였으나 대다수의 유럽국가가 거리 및 비용등의 이유로 일본을 회피하여 결국 일본이 제안을 철회함.

(사) 기타사항으로는 Harry Foster(미국대표)가 경기대회의 Syllable 판정기준에 이의를 제기, 격론끝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Special Committee를 차기 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함. 또한 숙박 및 예약에 대한 불만을 제기, 의장의 사과를 받아 냄.

마지막으로 국가그룹의 자격기준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마. 7월 15일

- (1) 1차 총회(시간 ; 09 : 00-11 : 40, 장소 ; 아파티궁) ; 연구논문발표 (지난 100년간의 속기 · 타자 · 사무기술의 발전)
- (가) 칼 구츨러박사(서독)
지난 100년간의 인터스테노총회
- (나) 올레도핑(스웨덴)
속기의 보전을 위한 가까운 장래의 기술-계획
- (다) 레오폴드 쇼 실(오스트리아)
1887년에서 1987년 사이의 속기보급, 발전을 위한 오스트리아의 공헌
- (라) 요시아끼 다카베(일본)
일본에서의 속기의 역사적 상황
- (마) 베슬린 쯔베크프(불가리아)
불가리아에서의 인터스테노 100년의 역사
- (바) 지안 파올로 트리발시오 교수(이탈리아)
어제와 내일의 속기
- (사) 올가 칼도바(체코슬로바키아)
지난 100년간의 속기와 사무기술의 발전
- (아) 르네 플레리(불란서)
비서업무와 현대의 사무기술 ; 육체적 · 정신적 위험

요소들

- (재) 발렌틴 쥘로프(불가리아)
다른 언어들간의 정보내용 비교분석
- (2) 2차 총회(시간 ; 15 : 00-17 : 10, 장소 ; 아파티궁) ; 연구논문발표(지난 100년간의 의회 · 총회 · 법원 · 언론 등에서의 속기에 관한 보고)
- (가) 마리 반 엑크(네덜란드)
네덜란드 의회의 지난 100년간의 속기현황
- (나) 알로지제 투르신(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의회의 120년간의 속기현황
- (다) 프란체스코 파리셋 박사(이탈리아)
기술진보의 한계와 미래에 있어서의 수필속기의 유용성
- (라) 프란시스코 탕가 교수(스페인)
스페인의 속기-특히 의회
- (마) 클라우디오 토시 박사(이탈리아)
기계속기 장치인 Michela의 장래발전에 대한 전망과 경험의 조화

바. 7월 16일

- (1) 3차 총회(시간 ; 09 : 00-11 : 20, 장소 ; 아파티궁) ; 연구논문발표(속기 · 타자 · 사



무기술 교사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역할)

(가) 루돌프 뢰찌히(스위스)

노력의 관점에서 본 정보·타자·속기교사

(나) 데세브 쥘로프(불가리아)

속기, 지성과 창의성

(다) 조셉 비머(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의 번문과 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라) 카를로 로드리게스(이탈리아)

타자에서의 실수에 관한 통계적 분석

(마) 로버트와 Thévenoux (불란서)

Key board에 의한 현대적인 번문과정의 표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동타이핑이 고물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요구인가?

(바) 마들렌 호프만(오스트리아)

새로운 IBM 프로그램에 의한 타이핑교습

(2) 전체총회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

(3) 폐막식 및 시상식

총 34명에 대한 속기·타자 경기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음.

불가리아, 동독등 동구권이

압도적 강세를 보이고 서독이 그에 대응함.

7. 성과

가. 속기 및 사무자동화 부문에 관한 최근의 보고환 및 의회 속기 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 청취

나. 속기·타자 경기대회의 세부 진행사항을 관찰함으로써 차기 경기대회의 한국선수 참가 가능성 타진(일본은 타자부문에 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음)

다. 한국의 속기제도를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교류 및 자료제공을 약속

라. 개회식 기조연설, 각국 대표와의 면담, 참가자들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한국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88서울올림픽을 적극 홍보함.

○ 진부한 예이지만 “from South or North”라고 묻는 참가자가 많았으며 이들에게 남북한의 차이를 설명함.

○ 특히 동독, 불가리아, 유고, 체코 등 동구권 대표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음.

8. 기타사항

가. 대부분의 회의는 불·독·이

태리어 중심으로 되어 영어는 소외되는 듯한 감이 있었으며 차기 중앙위원회와 총회는 독어권 국가에서 열리는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나. 아시아에서는 1939년부터 일본이 가입하여 금번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고 26명의 대표단을 보내는 등 그들의 활동이 적극적인 한편 새로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가입되어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예상됨.

다. 각종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며 인터스테노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느꼈음.

라. 경기대회에 대한 시상식은 동독, 불가리아 등 동구권의 차지였고 일본은 2명이 타자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둔 듯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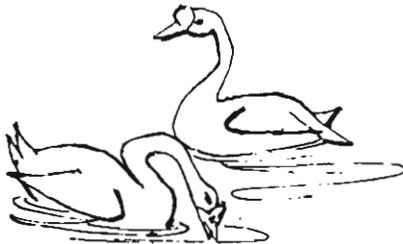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마. 회장 및 사무총장의 연설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 연맹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계속적으로 문호를 확대해 나갈 것이므로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준비 및 활동이 필요할 것임.

9. 건의사항

인터스테노 총회는 속기·타자인들만의 모임이나 아시아권에도 점차로 개방이 되어 가고 있는 만큼 한국도 계속적인 참가를 통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함.

이는 한국 속기인 자신의 충분한 준비와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계속적인 국고의 지원이 필요로 됨.



인터스테노 약사

카알 구츨러

(인터스테노 사무총장)

-다음의 내용은 제 37차 인터스테노 총회 개회식에서 있었던 Karl Gutzler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국제 속기인 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1887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영국의 런던에서였다. 몇몇 영어속기 법식의 창안을 축하하기 위해 영국인 Westby Gibson박사에 의해서 구성된 이 회의는 11개 나라에서 135명이 참석했다.

British Press에 의해서 크게 보도된 회기 1주일의 이 회의는 속기계를 고무시켰다. 그들은 의회속기, 속기교수법, 속기이론의 문제점, 그리고 속기의 역사나 문헌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Gibson박사는 원래 회의를 한번으로 끝낼 예정이었으나 참석자들은 매 2년마다 회합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열릴 회의들을 조직하기 위해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887년부터 1923년 사이에 11번의 회의가 열렸다. 두번째 회의는 1889년 파리에서 열렸는데 에펠(Eiffel)탑이 건립된 만국박람회기간과 같은 때였다. 세번째는 1890년 뮌헨에서 개최되었고 한번은 역시 만국박람회가 열린 1893년에 시카고에서도 열렸는데 이것이 Intersteno사상 유일하게 미국에서 개최된 회의이다.

이러한 초기 회의들은 속기이론에 관한 정보나 생각이 교환되는 토론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속기는 여러 나라에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되었고 여러가지 적용법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속기법식들이 아직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고 아직 조직화되지 못하였다. 몇몇 속기인대회는 이들 새로 개발된 법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속기 경진대회의 특색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16년 알제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가 취소되었다.

Intersteno의 두 번째 기원은 스트라스버그의 1920년 회의에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의 속기인들이 의도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상서롭지 못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2 조직위원회라 불리운 그 대회 동안 불행하게도 어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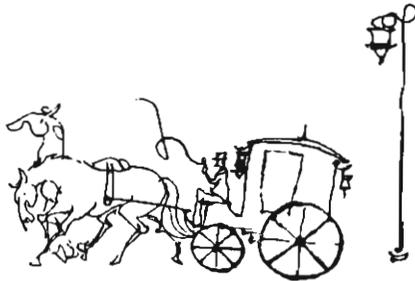
룹이 다음 번 대회를 소집할 것인가로 원래의 위원회와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전문 속기에 대한 유용한 공헌이 많이 있었지만 비록 두 그룹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라이벌 관계로 말미암아 조직체의 힘이 상당히 상실되었다.

193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암스텔담대회에서 조화와 통일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런던에서 개최된 1937년 대회와 함께 Intersteno의 제2기원도 끝나게 되었다. 왜냐 하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미래의 계획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1955년 모나코회의에서 Intersteno의 세번째 기원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에 속기 및 타이프의 국제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horthand and Typing)이 설립되어 Intersteno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일 뿐 아니라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최근 30년 동안에 속기 및 타자의 세계참피온 경기가 Intersteno대회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참피온 경기의 결과가 모든 대회에서 가장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 경기에 젊은이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속기 및 타자의 속도나 정확도가 보다 더 높아짐과 함께 회의 참석율도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Intersteno의 황금기에 기여하고 있지만 특히 스위스 베른의 Marcel Racine와 그의 부인 Roselyn에게 명예가 돌아가고 있다. 이탈리아 어와 영어뿐 아니라 불어와 독어까지 능숙한 M.Racine은 Intersteno가 진정으로 국제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4대륙으로 뻗어나간 기간 동안 28년간 Intersteno의 사무총장으로 봉사했다.

(NSR, 1983년 12월호 중에서) (번역 : 최윤정 회원)



남미풍경

김 영 선

87년 8월에 약 2주간 상공위 시찰단을 따라 남미에 갔었다. 평소에는 막연히 우리나라 지구 반대쪽의 먼 곳으로만 여겼는데 가보니 역시 우리와 반대되는 것이 많이 보였다.

첫째로, 기후가 정반대로서 8월은 남미의 겨울이다. 우리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지어 보이면 돈을 뜻하는데 브라질에서는 항문을 뜻한다. 브라질에서는 부모를 딸이 모시는 것이 원칙이고 유산은 딸에게 많이 준다. 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등 우리와 다른 여러가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브라질은 흑·백·황인이 서로 섞여 새로운 문화를 엮어 가고 있으며 인종차별은 없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일본인의 이민은 얼마든지 받는다. 물론 희망자가 별로 없지만... 그 이유는 일본인의 초기이민이 자리잡은 농장에서는 죽어가면서도 그 농장을 지킨 성실성이 신뢰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일본계 고관이 많고 상류사회에 일본인이 많

이 진출해 있으며 쌍파올로 변화가의 일본인거주지역 입구에는 커다란 붉은 도리이(일본신사 입구의 문 우리나라 사찰의 일주문에 해당됨)가 서 있으며 일본의 한도시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다. 사람 언어 상호간판 심지어 술집의 내부구조까지 일본냄새가 물씬 난다. 여기에 비하여 한국인은 브라질에서 일반 이민은 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초기 농업이민이 그곳에 가서는 농장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해 버렸기 때문인 것 같다. 어쨌든 이민간 한국인들은 유대인이 하던 봉제품 시장에 진출하여 급속히 상권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쌍파올로의 유명한 봉제품 상가인 봉해찌로거리가 한국인의 거리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몇 집을 빼고 대부분은 유대인의 상점을 세로 빌려쓰고 있는데 그 집세 때문에 말썽이 많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대개 1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은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에다 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재계약시에 터

무니없이 세를 올리는 등 건물주의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 해서 한 한 국민이 시내 중심의 버스터미널을 매입해서 새로운 상가로 개조중에 있는데 이로 인한 타민족의 질투가 커졌다고 한다.

브라질의 교포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력은 늘고 있지만 2세의 탈선이 빈발해서 2세 교육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민중 교육에 관심있는 원로들이 현지실정에 맞는 부교재를 만들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인회관을 건립했고 한인공동묘지를 건설했으며 한국계 은행의 설립, 운동장건설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강도가 많고 인플레이가 높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회 여건에서도 교민사회는 생기가 돈다. 그 힘의 원천은 우리 민족의 끈기와 늘어나는 경제력에 있다고 믿어진다.

리오데자네이로의 해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그 해변가의 일류호텔 숙박료가 1일 약 80달러로 미국의 반도 못되는 값이며 좋은 식당에 가서 고기와 포도주를 싫도록 먹어도 1인당 8달러 정도 계산이 나와서 이 지역은 확실히 달러가 힘을 쓰는 곳이었다. 경제적으로는 1,100억 달러 이상의 외채가 있고 누적된 재정적자가 그보다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종류 이상 가정에서는 외국에 가서 은행구좌를 개설해 놓고 상당한 돈을 도피시킨다

는 것이다. 인플레이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는 군정이 끝나고 민정이 됐는데 정치 불안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군정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하는 국민이 늘어 간다고 한다. 한 예로 알콜車を 장려하기 위하여 알콜을 싸게 공급하고 알콜車는 감세했었는데 그 후에 석유가 개발되니까 알콜차에 대한 세금등 특혜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운행하고 있는 알콜차는 어찌란 말이냐 하면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 등이다. 이 사회에 부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넓은 국토, 많은 자원, 1억 3천의 인구는 이 나라를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아르헨티나는 1940년대에 부자 나라로 알려진 나라인데 1943년 군사쿠데타로 페론파가 집권하고, 1946년 페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가 1955년에 군사쿠데타로 쫓겨나고 그 후에도 쿠데타가 계속되고 1973년에 페론이 다시 등장했다가 1974년 페론이 죽고 그 부인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등 혼미를 거듭하다가 1983년에 알폰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민정에 복귀했는데 지금도 소위 페론주의의 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페론이 처음 정권을 잡을 때에는 이 나라 국민의 95%가 신자인 카톨릭, 군부 및 노조가 페론을 지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과 군부가 등을 돌리니까 페론이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노동계층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적인 노동자 우대정책을 실시한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투자하지 않게 되고 노조의 세력만 키워 산업의 침체국면을 초래하면서 쌓여 있던 정부의 나눠먹기식 정책을 하게 되었다. 잦은 파업으로 기업체는 국외로 나가게 되었고 사회복지적 시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원에 가면 빵과 우유가 쌓여 있어 누구나 마음대로 먹게 했다고 한다. 또 잔존 기업도 내수 의존적 개발정책에 따라 산업화과정에서의 높은 보호장벽과 특허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개방이나 파업 및 임금인상등 압력을 흡수할 능력이 약화되어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페론이 아르헨티나를 망친 장본인인데 지금도 페론에 향수를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 페론주의자가 의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옳은 것과 인기는 전혀 별개인가 보다. 현대판 조삼모사도 통한다는 현실을 구경한 것이다.

1940년대에 국민소득이 2,000달러이었고 세계 10대 강국중의 하나라고 하던 이 나라가 계속 인플레이와 재정적자에 시달렸지만 가장 인플레이가 심했던 기간은 1985년 1월부터 6월까지 1,182.2%의 인플레이가 되

어 1,000페소를 1아우스트랄로 통화개혁을 단행하고 외환율과 상품가격 및 임금을 동결시켰으나 그 후로도 86년에 103.7%의 인플레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을 내는 인구는 25% 정도에 불과하며 국가의 재정수요를 통화증발 및 외채도입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자가 누적되었고, 둘째,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여 생산력을 무시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셋째, 과다한 공무원의 보유로 조직유지에 국가재정의 약 30%가 소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로 생활급이 안되니까 한 공무원이 三重籍을 두는 등 방만한 공무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공기업의 적자운영인데 예컨대 철도청의 경우 수입이 1이면 지출은 2.4에 해당한다. 다섯째, 국내산업을 너무 보호한 결과 기술이 낙후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섯째, 주인의식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의식이 문제이다. 스페인인 이태리인이 많은데 아르헨티나가 조국은 아닌 것이다. 기타 민족도 동일하고, 그외에도 경제정책의 일관성결여, 복지제도의 조기실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국토의 넓이가 남한의 약 27배에 인구 약 3,000만명의 자원이 풍부한 대국이다. 달러 표시의 각종 경제지수에도 불구하고 실

물경제면에서 보면 경제력이 충실하며 현난국을 타개하겠다는 범국민적 의욕을 일으킬 수 있다면 국력신장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는 우리의 이민을 제한없이 받아준다. 다만 한 가구당 3만달러는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돈은 이민 희망자가 우리 나라의 해외개발공사에 예치하면 비자를 내주는데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한국인의 이민이 계속 늘고 있다. 이 나라는 흑인이 거의 없으며 인종차별도 없고 스페인계와 이태리계 주민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 일본인들도 온 지 오래되어 2세 3세까지 있지만 브라질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다.

우리 교민들은 이민간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회에 빨리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대개 봉제품등 장사를 하니까 인플레이에 편승할 수 있고 근면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민 중에는 그 곳에 가자마자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현지 주민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여 좋지 않은 인상을 심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민들은 개척할 틈이 많은 이 곳에서 착실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 곳에 이민 온 한 퇴직교수는 남미일원을 여행하고 나서 이 곳은 본디 우리 땅인데 우리가 한눈파는 사이에 스페인이 빼앗은 곳이니 우

리가 다시 찾아야 할 땅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 곳 원주민 인디오는 생긴 모양 생활도구 언어까지 우리와 너무 닮았다. 즉 우리와 같은 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침략자에게 빼앗긴 것이니 도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교민이 백인 선주자와 다투다가 백인이 온 지 얼마 안 된 주제에 건방지게 군다고 하는 소리에 이 곳 인디오와 내가 닮았느냐, 네가 닮았느냐고 반박하니 까 말을 못하더라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기후가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이 많고 아열대와 한대 지방도 있으나 대체로 우리 민족에게 맞는 기후대이고 이민 가기 쉽고 정착하기 쉽다. 그러나 양봉농가의 정착사업 실패는 한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 북부에 꽃이 많고 좋은 지역을 여러가지로 조사해서 해외개발공사에서 양봉농가를 집단으로 이주시켰는데 벌이 그 곳에 가서는 자꾸 죽더라는 것이다. 다시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에 말벌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더 남쪽 다른 곳으로 양봉단지를 이전했다고 한다. 이 곳 주민들은 인플레이가 100%건 1,000%건 실생활은 큰 영향이 없다. ...다. 그 사람들 얘기가 40년대에도 아사도(양갈비구이로 이 지역 고급 요리로 친다) 먹었고 지금도 아사도 먹고 저녁에 탕고 즐기고 요트 타고 놀고 뒀 다른 것 없다고 한다. 그러

나 교민들의 얘기는 생활이 다른 것은 별로 없으나 근래에 가정부인들 취업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아무리 낙천적이라 해도 쓸 돈을 벌어야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겨울은 우리나라 늦가을 정도의 추위이다. 처음 이민간 교포들은 그 곳 겨울이 하나

도 춥지 않은데 그 곳 주민들은 추워서 털옷에 장갑을 끼고 다닌다. 그런데 우리 교민도 2년만 지나면 추위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곳에 가서 몇 년간 여기서 살던 마음으로 일한다면 생활의 터전은 훌쩍히 잡을 것같이 보인다.

원 고 모 집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요자 함이 본회지의 발간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다음 요령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회지편집자에게 보내 주십시오.

☆ 보내실 곳 : 본협회 섭외부(국회속기과) Tel. 788-2476

- ◇ 표지그림·사진 : 가로15cm 세로 11cm정도
- ◇ 연구논문.....200자원고지 20~40매
- ◇ 속기실무.....200자원고지 15~25매
- ◇ 회 상 기.....200자원고지 15~25매
- ◇ 수 필.....200자원고지 15~25매
- ◇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남아 기행

박 광 태

국회사무처의 각국 의회제도시찰 계획에 의하여 본인은 작년 4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동남아의 회제도시찰단의 일원으로 대만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다녀오도록 선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우리나라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한편 내 주위에는 존경하는 선배님과 동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선발된 데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음을 밝혀두고 싶다. 선후배 여러분들에게 고루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 쓰는 재주가 없는 처지라 그저 순방국별로 주마간산 격이나마 시찰담을 간단히 피력하여 동남아 여행을 재현 해봄으로써 장차 외국여행을 하시게 될 선후배 동료들에게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기행문이라기보다는 차 한잔 놓고 얘기 나누는 식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혹시 증언부연하

는 부분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히 헤아려 주시리라 믿는다.

김포에서 대북까지

분망했던 여행준비를 끝내고 지난 4월 8일 오전 드디어 첫 순방국인 자유중국으로 떠나기 위해 당시 신세화과장님등의 전송을 받으며 오전 10시45분 타이완행 KAL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이륙했다. 겨우 2시간 20분만에 대만국제공항인中正공항(고 장개석총통의 아호를 딴 공항명)에 내리게 되니 그 먼 곳에 벌써 다 왔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문명의 이기의 위력에 새삼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북 - I

입국수속을 마치고 台北 시내에 들어가면서 시야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고무나무 야자수 등 열대성 식물

들이 가로수로 늘어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관문 도로변에 옛 일본식 건물이 상존해 있음에도 걸치장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실리적이고 검소한 대만 국민성에 감명받은 바 크다. 외화내빈의 빈축을 사는 우리 사회의 일각을 생각하면서 이를 우리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느꼈다. 시내 교통수단 중에는 오토바이가 매우 많은 것이 이색적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뒤에 일행은 아오자이 차림의 늘씬한 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저녁식사를 하며 긴장을 풀었다. 일행은 사전에 경제적 순방을 결정했지만 각국마다 그래도 한번쯤은 好食키로 했었다. 저녁식사를 느긋하게 즐긴 다음 대만 특유의 夜市場 관광에 나섰다.

수많은 남방 과일과 코브라요리 시식장이 이색적이었다. 부근에 밤의 여인가는 호기심이 없지는 않았으나 혹시나 강패들과 충돌할까 보아 일행 7명(여자 2명포함)이 손을 꼭 잡고 지나쳤다.

台北 - II

자유중국 입법원 방문 일정이 4월 11일로 조정됨에 따라 오늘은 대만에서도 유명한 산악관광지인 花蓮을 기차편으로 다녀왔다. 花蓮의 자연비경은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

을 무색케 할 정도였다. 40리가 넘는 험준한 산악코스는 넓은 하늘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길 양쪽으로 기암괴석이 치솟아 있어 그 광경을 보고는 대자연의 신비함에 저절로 머리숙여질 뿐이었다. 이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도로공사가 7년 대역사 끝에 이루어졌다니 중국인의 대륙적 기질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보니 花蓮으로 가는 열차내의 풍경과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열차내의 손님들은 장거리 여행임에도 고스톱 치는 광경이나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맥주파티하는 우리네 모습같은 것은 볼 수가 없었다. 미처 식사를 못하고 승차한 듯 보이는 사람들도 간단한 식사 외에는 전혀 먹고 마시지를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열차내 매점의 매상고 울리기를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같았다. 열차내에서 본인과 박청일씨는 좌석을 구하지 못해서 서서 있는데 마침 옆에 앉은 여대생들과 필담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니 엉성하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무료함을 달래며 花蓮까지 갈 수 있었다. 필담 중에 그 학생들의 반공정신은 참으로 철저하고 생활태도는 성실 근면함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와 헤어질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과자를 강권하는 바람에 못이겨 받긴 했으나 무언가 보답을 못해주어서 지금도 아쉬움이 남아 있다.

台北市 거리에 보이는 한자 간판

중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자동차 표시는 機車나 汽車로 열차는 貨車로 정류소는 정거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왜소한 편이었다.

台北—III

4월 10일에는 基隆市(무역항)의 비취만 해수욕장을 돌아보고 中正 박물관을 관람했다. 고 장개석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철수시 어찌나 많은 보물급 유물을 가져 왔는지 그 넓은 中正 박물관에도 일시에 다 전시를 할 수 없어 6개월마다 전시품을 바꾼다고 하니 가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台北—IV

입법원 비서처(우리의 국회의사무처)의 彭明娟(여) 科員(課員)의 안내로 자유중국 입법원을 둘러보니 우리의 의사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소규모이고 속기사도 12명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자유중국 어디를 가나 고 장개석총통과 孫 文 선생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대단하였다. 특히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에는 거대한 기념관(中正紀念館)을 만들어 놓고 대만 각지에서 연일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줄을 이어 구경을 오고 있었다. 그분들의 유지를 받드는 온 국민의 일치 단결된 모습

과 정신적 결속 그리고 검소한 생활로 미루어 볼 때 아무리 거센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도 밝은 경제적 전망을 계속 구가할 수 있을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었다.

태국— I

말로만 듣던 홍콩을 경유, 태국에 도착하여 한국인 이종연사장이 경영한다는 맨하턴호텔에 駐泰 한국 대사관 2등 서기관의 안내로 여장을 풀고 보니 우선 우리나라의 힘이 동남아에까지 널리 뻗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신장된 국력에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호텔비를 디스카운트해 주고 한국인이 투숙하고 있는 방마다 심심한 파인애플을 선사해 주는 이종연사장의 그 훈훈한 인정이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태국— II

다음 날은 방콕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파타야 해수욕장에 가서 동심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철이른 해수욕을 즐겼다.

근처 바다밑의 산호서식장을 관광한 뒤에 남국의 태양 아래에서 냉동시켜 놓은 값싼 야자수(水)로 목을 축인 다음 코리아나라는 한국음식점에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

다. 그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야간에는 티파니쇼라는 것을 관람했는데 이 쇼에는 외국의 관광객은 물론 태국인들이 가족동반으로 온 광경도 많이 보였다. 무대에 나온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의 모든 여자출연진이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女裝남자였던 것을 모르고 모든 관객들이 일시나마 그 늘씬한 관능미에 현혹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태국—III

태국은 4월 13일이 1년중 해가 가장 긴 날이라 하여 이 날을 명절(우리나라의 설날)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4월 14일에야 의회방문일정이 잡혔다. 4월 13일은 외국인으로서의 여간해서 얻기 어려운 기묘요 행운의 날이었다. 태국의 전통행사가 재현되는 날인 것이다. 강물과 크립세체를 주는 풍습인데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방콕의 강변을 수상시장에서부터 보우트로 일주하면서 물세례를 잔뜩 받고 (배를 타고 지나가면 강변의 주민들이 양동이나 비닐주머니에 그 시커먼 방콕 강물을 집어넣어 몸에 물을 뿌려 씻어주는 행위) 또 액운을 떨쳐내게 한다는 씨를 으깨서 만든 크립세체를 얼굴에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의식에 의해 우리의 액운도 없어지고 마음도 정화된 것인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태국—IV

다음 날은 거대한 악어사육장과 민속촌을 관람하였는데 엔高的의 여파인지 역시 어디를 가나 일본관광객이 무수히 눈에 띄었다. 우리가 갔을 때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이 와 있었다. 이곳은 우리보다 물가가 싸서 야자나 바나나 값은 대충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되었다. 과연 이곳의 농산물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농촌이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은 땅들을 늘리고 있는데 국민들의 모습은 대만과는 달리 게으른 편이고 불교정신에 투철하여 내세에서 극락세계를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낭만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태국 국왕은 국민의 절대적 존경을 받으면서 태국 국민을 뭉치게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불교국가인 태국의 수도 방콕 시내에는 곳곳에 불교사원이 산재해 있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사원(에메랄드 불상을 모신 사원)은 외부가 온통 금빛 찬란한 황색 장식품으로 꾸며져 있으며 그 안에는 세계적으

로 유명한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 군대가 경비를 서고 있었다.

200년 전 이 나라의 수도였던 古都 아이유타야는 폐허가 된 불교잔해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사업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비록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낮더라도 국민들의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한 것같았다.

태국 - V

태국의회에는 대사관에서 정해 주신 통역 한 분을 대동하고 일행과 함께 도착, 그곳 사무처 섭외과장(女)의 안내를 받아 먼저 태국의회내의 박물관을 시찰하였다. 태국은 이미 약 60여년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당시의 국왕이 국회에 나와서 행하던 여러가지 의전장면들이 소상히 진열되어 있어 의회박물관이라기보다 태국국왕의 의회에서의 의전행사 기록장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국왕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둔 것이 특징적이었다. 사무처에 들어가서는 그곳 총무과장의 사회로 의사담당 책임자와 자료담당 책임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었다. 하원의원은 367명이고 속기사는 50명 정도라고 했다. 속기사는 우리나라의 총무처격인 중앙인사기관에서 공개로 모집하고 속기교대시간은 5분이며 60세가 정년이라고 했다.

김좌수 태국대사께서는 前박효진 국회사무총장과 동료간이라시며 우리 일행을 상당히 친절하게 맞아 주셨는데 방콕에는 복괴공관도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에 팬스레 긴장이 되기도 했다. 그외에 駐태국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태국여성들의 자기 업무에 대한 당당한 모습은 우리도 본받을 바가 큼을 느꼈다.

태국에서 아쉬웠던 기억은 그 유명한(?) 코브라탕을 1회밖에 못 먹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은 수입을 금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코브라 한 마리 값이 20내지 30만원이었다는데 일금 2만원 정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단 한 번밖에 못 먹었으니 한 마리당 18만원 이상씩 손해를 본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나의 후회스러움도 허풍이라고 할 것만은 아니라는 데에 공감해 주실 분이 많으리라 믿는다. 언제 다시 기회가 생긴다면 부부동반으로 다시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싱가폴

싱가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常 暹의 도시국가로서 무역으로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항구에는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중에 소련 국기를 단 대형화물선도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분단현실

이 새삼스레 가슴을 찢었다.

한편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쇼핑은 싱가포르에서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의 물품은 진품이라는 것을 참고로 독자에게 귀뜸해 둔다. 그것은 이 나라의 주업이 무역이기 때문이다.

홍콩

홍콩은 듣던 대로 세계인종의 전시장같았으며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관광시설이 많았다. 그런데 해양박물관으로 가는 해저터널과 산등성이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홍콩의 광경은 과연 일품이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 안에 있는 훌륭한 수족관 시설과 돌고래쇼등은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인 것 같다.

일본

우리 뇌리 속에 평소 잔재해 있던 대일관과 물가가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행들 모두는 일본여행은 알뜰여행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도쿄에서는 서명한 駐日 국회 주재관의 안내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조촐한 하숙집에 숙소를 정했다. 호텔보다 불편하긴 했지만 그 동안 많은 한국의 단체방문객들이 다녀간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집이어서

낯설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위안을 받으며 지냈다. 도쿄타워 히비야공원 일본국립박물관 궁성 일본중의원 등의 순방 및 관광으로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富士山이 보이는 은천관광지 하코네를 거쳐 빠르기로 유명한 신간선을 타고 오사카에 가서 일박했다. 오사카에서는 오사카성 등의 유적을 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일본여행중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일본의 중고등학생은 지금도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과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물을 빼놓으면 보잘 것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궁궐 주위에도 연못(해자)를 파놓았다는 것이 특이했으며(역사적으로 작은 内戰에 대한 대비?) 또한 어디를 가나 山頂에까지 도로가 잘되어 있고 열차역 주변에는 수없는 차량이 준비하여 러시아워의 교통난을 상상케 해주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면서는 주로 TV를 보게 되는데 일본의 TV프로는 눈요기가 세법 되었다. 아마 이것이 개방의 정도 차이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주택은 서양인들이 빈정대듯이 말 그대로 닭장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현대식 건물 이외의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조금씩은 낡은 일본식 건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도 근검절약하며 살아가는 일본인

남녀의 예의바른 점과 건실한 면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와 동시에 히비야 공원에 있는 仁仁박사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일본과 일본인을 알고 슬기롭게 우리를 키워 나간다면 예전의 우리 조상들 시대와 같이 일본을 따라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들었다.

오사카에서 서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사카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 KAL 비행기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조국의 고마움이랄까 태극마크에 대한 반가움이랄까 뭔지 모르게 몽클하고 가슴을 치미는 것을 느꼈다. 외국에 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경험을 한다면 강한 애국심을 가진 이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

지 않을까 생각하며 잠깐 즐겼는데 어느덧 눈에 익은 한국의 산과 강 도로와 집들이 눈 아래 펼쳐졌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김포에 내리는 것이다. 이제 가족들과도 반갑게 만나려구나 생각하며 자꾸 조금해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안전한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포공항에서 집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차창을 통하여 내다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수많은 자동차들— 포니 스텔라 르망 프레스토 프라이드… 한결같이 우리가 생산한 자동차들이다. 대만 태국 싱가포르 홍콩 어디를 가든 거의 일본 차들 뿐이었는데 우리의 서울에는 우리가 생산한 우리의 차들이 저렇게 질주하고 있지 않은가! 조국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조국에서 다시 한번 느껴 보았다.

* * * * *

『자네는 어린애를 좋아하나?』
『다 좋아하지는 않아』
『그럼, 어떤 애가 좋단 말인가?』
『으아, 하고 우는 아이가 좋다네.』
『왜?』
『곧 데리고 가거든.』

가을 고독 그리고 나

배 영 수

가을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잉크색깔마저 변해가는 옛 노트에서 이 한 줄의 말을 꺼내 읽으면 난 지금도 가을을 느낀다.

가을이 내 기억 속 깊이 묻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의 변경에서 풀벌레가 울기 시작한다. 그 소리를 들으며 또 가을을 들어 본다.

저 봄에, 잔설이 남아 있는 땅에서 지난 해 나뭇잎들은 돌아났고 마음의 솜털이 자라 사랑에 눈뜨며 가을이 익어갈 때, ... 나는 겨울에 와 있다.

그 계절에,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용기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처럼 나무는 그렇게 혼자서 자란다.

어쩌면 창조도 성숙도 그 모두가 혼자 있는 시간에 모래알이 쌓이듯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억의 보석들

마음 바쳐 사랑했던 시간들이 빗줄기 속으로 여과되는 가을... 생이, 자신이 왜 그렇게 절실히 느껴졌는지. 마치 이때까진 죽어 있었던 사

람처럼.

이때까지 살아온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하여, 새로운 정신의 집을 짓기 위하여, 새로운 운명への 도전을 향한 길을 떠나기 위하여 이 가을에 자연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익게 하며 사람에게는 의토움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흙속 깊이 잔뿌리를 내려 수분을 취하고 그것을 빨아올려 햇빛과 섞어 잎을 만들고 키를 키우는 나무의 생.

계절이 오면 잎을 태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열매마저 어머니인 땅에 돌려 보내고 나면 앙상한 가지를 벌려 하늘을 바라보며 겨울을 기다리는 가을 나무가 겪는 고독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절대의 고독 그 끝에서, 자기탐구의 마지막에서 사랑의 깊은 가운데서, 그리고 거대한 자유의 광장에서 나는 새로이 시작하고 싶다.

속기 萬感

이 미 정

오늘도 속기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7년전 나의 생활을 떠올려 본다.

여자 나이 26세면 결혼에 결코 방심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있었던 나는 그전부터 가져왔던 속기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그제서야 공개강의를 통해서 속기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기초과정을 배우는 두 달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약자를 배울때마다 속기가 오묘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이 직업이 나의 천직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때 이미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즐겨오던 몇 가지 취미생활은 잠시 보류되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는 일조차 뜸해졌다. 오로지 집, 학원, 각종연설문, 신문사설, 이러한 것들이 내 생활의 전부였다. 이때 한자 실력도 향상되고 시사문제에도 밝아졌다. 식사시간도 단축되었다. 식사를 빨리 마치고 속기가 하고 싶어서였다. 꿈 속에서는 항상

속기문자를 그리기 일수였고, 그 당시 아버님께서 「공부를 진작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박사 됐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속기에 대한 나의 집착은 분명 보통을 넘은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결코 최선을 다해 속기에 전념한 것은 아니다. 가끔 농땡이 피운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열심히 한 덕분에 나는 학습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했다. 속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에 3백자 속도를 나갔었으니까.

이렇듯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에는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뒤따랐다. 시기가 나뉘는지 아니면 내가 운이 나뉘는지, 속기사 자격시험 주관기관이 『대한속기협회』에서 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으므로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거듭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비로소 나는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야 말았다. 1급시험에 응시해서 보기 좋게 낙방한 어느 더운 여름날, 나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1, 2, 3급 통틀어서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관리공단의 속기담당 사무실에 찾아가서 「나는 내가 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원고지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으니 내 원고지를 보여달라」고 생떼을 썼다. 보여줄 리 만무였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보여주리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었다.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고집을 못 이겨 결국 채점표만 보여주었다. 90%를 아슬아슬하게 못 넘기고 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녹음상태가 나쁘고 발음도 분명치 않았다」는 등의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는 그곳에서 나왔다. 덕분에 그 해 겨울에 실시된 자격시험 때 그 담당자가 「이미정씨, 시험 잘 봤습니까?」라고 내게 말을 건네는 등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속기사가 된 뒤에 나의 진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애당초 속기사 사무소를 구상은 했지만 「과연 일거리가 있을까?」「여자들이기 때문에 장애요인은 없을까?」여러가지로 고민하다가 국회 외에는 마땅한 곳이 나서지도 않고 해서 속기사 사무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못한 탓에 사업을 하시는 큰 오빠 사무실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몇달 뒤 종로 광교에 공동으로 같이 쓰는 사무실로 독립하여 옮겼다. 그 뒤에 녹취와 주주총회 같은 몇몇 단골도 생기는 등 그런 대로 발전할 수 있을 무렵 속기사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주주총회 27시간이라는 최장시간의 속기를 한 것이다. 그때엔 잠도 못 자고 회의가 빨리 끝나기만 바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커다란 추억으로 남아 있다. 86년 2월 26일 오후 2시에서 27일 오후 4시 45분까지 회의를 한 0철강공업(주)의 은혜(?)에 힘입어 그 동안 그리던 여전한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6월부터 교습소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듯하다. 변호사사무실에는 나의 이름이 거의 알려지게 되었고 20개사 정도의 주총 단골회사도 확보하게 되었다.

작년 10월 26일에 모신문사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취재하러 왔다. 세 시간 정도 취재했는데 11월 3일자 『일하는 여성』란에 보도되었고 그 덕분에 라디오와 월간지에도 몇 번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속기사로서 가끔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것은 속기사사무소의 주된 업무가 주로 법정용 녹취이다 보니 승소를 했다거나 일이 잘

해결됐노라고 간혹 연락해 오기도 하고 혹은 사무실로 찾아와 점심을 사시는 분도 계시다. 그런 날에는 나의 컨디션 최상의 날이 된다.

그러나 그 동안 결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금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여태 밝고 아름답게만 보아왔던 나의 가치관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다. 「이 세상이란 이런 험악한 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나도 제법 사회인이 된 것 같다.

속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속기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나는 속도나갈 즈음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속기에도 여러가지 법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로 자신의 법식에 대해 아주 강한 자긍심을 지니고, 그 우수성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상은 나에게 별로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음

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나는 생각했다. 「만약, 이 속기법식을 초월해서 속기인들이 더욱 단합하여 속기의 발전을 위해 힘쓴다면 획기적인 속기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는 나의 이러한 생각이 너무 주제넘은 생각일지.

지금 현재 속기사사무소와 속기사 양성에 종사하고 있는 속기사로서 강렬히 느끼고 있는 점은 속기의 활용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속기사 처우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물론, 속기의 대중화까지도 결코 헛된 꿈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다. 머지 않아 이런 나의 소박한 바람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고 다짐하면서 잡은 분필에 힘을 꺾어 주어 본다.

* * * * *

어떤 여자가 화가 잔뜩 나서 전기 상점으로 찾아왔다.

「사람 좀 보내어 벨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안 보내 주지요?」

「미안합니다.」하고 가게주인이 대답하였다.

「사람을 보냈더니 녀석이 그냥 돌아왔어요. 댁에 가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속기계 이모저모

1987. 3-1988. 3

섭외부

○ 해외출장

- 박광택회원 : 동남아의회제도시찰(87. 4. 8~4. 21)
임철순회원 : 동남아의회제도시찰(87. 6. 17~7. 1)
김인영, 이정구회원 : Interteno 이태리 플로렌스 총회참석(87. 7. 11~7. 17)
김치원회원 : 정무장관실정당원동남아 해외시찰(87. 8. 31~9. 10)

○ 승진

- 김인영회원 : 속기과 편집1 담당 → 속기과장
송기철회원 : 의전과 의전 2담당 → 법제사법위원회입법조사관(87. 7. 15)
이승철회원 : 속기과 속기 6담당(87. 9)
현병고회원 : 운영위원회 → 입법조사3과, 동력자원자료담당(87. 9)
박광택회원 : 사무관대우('87. 10. 24)
서평길회원 : 사무관대우('87. 10. 24)

○ 전보

- 신세화회원 : 경제과학위원회입법조사관('87. 7. 15)
강종원회원 : 입법조사 1 과국제관계자료담당('87. 7. 20)
강서홍회원 : 속기과편집1담당('87. 7. 20)
홍순관회원 : 관리과의원회관담당('87. 7. 20)
하양배회원 : 도서관수서과국내교환담당('87. 7. 20)
김기영회원 : 입법조사 1 과총괄담당('87. 9. 11)
장숙경회원 : 도서관정간자료과국내정간담당('87. 7. 11)

○ 표창

- 안기철회원 : 국회사무총장상('87. 9. 7)
차공순회원, 김채영회원, 권영찬회원, 홍기표회원, 정명순회원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총장상('87. 12. 31)
조영기회원 : 국회사무총장상('88. 1. 4)

○ 전 출

이윤화회원 : 국민연금관리공단감사과('87. 10. 5)

전이제회원 : 농업협동조합석촌지점

신건현회원 : 포항종합제철(주)비서실('88. 3. 2)

○ 유 학

윤희억회원 : 꽃미주리주립대영문학석사과정

○ 발 령

오광웅회원 : 남양주경찰서의근계장

배영수회원 : 국회사무처 속기과('87. 3.28)

○ 결 혼

김양실회원(87. 2. 21) 김정덕회원('87. 5. 9) 박치명회원('87. 11. 14)

○ 합 격

윤승희회원(동국대영문학과)

○ 임원개선(改選)

1988년 2월 9일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신세화 전임 이사장의 후임에 김인영 회원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2월 17일 제139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진의 개편이 있었음.

총무이사-이승철회원(전 섭외이사)

섭외이사-조우석회원(전 자격심사 및 연구위원장)

자격심사및연구위원장-유지영회원(전 무임소이사)

총무부장-안기철회원

○ 속기무료강습

제40회 하계강습('87. 7. 20~8. 8)과 제41회 동계강습('88. 1. 11~1. 30) 이 서울과 지방에서 각각 실시되었는바 그 수강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	내용	접수인원	수료인원
40		302명	223명
41		582명	366명

편집을 마치고

◎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부드럽다.

겨우내 찬 바람과 눈보라에 시달리던 나뭇에도 연초록빛 새순이 돌아나고 있다. 새봄을 맞아 새로이 구성된 집행부가 앞으로 할 일들이 주목된다. 부디 협회의 제반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가기를.

◎ 봄은 또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이 땅에 속기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그 날은 아직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무리 척박한 토양 일지라도 꽃이 피어나지 못함은 가꾸는 이들의 게으름과 무지 탓이 아닐까. 『속기계』는 모름지기 모든 속기인의 대화의 광장이어야 한다. 그 대화는 한국속기계와 대한속기협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대화는 자유롭고 활발히 전개되어야만 한다. 협회의 할 일은 바로 이 대화의 광장에서 오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수렴하여 협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속기계』는 또한 우리의 얼굴이다. 옛사람들은 사람의 됴됨이를 판단하는 표준을 身, 言, 書, 判에 두었다 하지만, 『속기계』야말로 우리 속기인들의 身, 言, 書, 判을 그대로 드러내는 얼굴이다. 인생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모든 속기인들은 오늘의 한국 속기계의 현실에 대해 과연 얼마큼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가. 전문인으로서의 철학과 방향감각은 과연 얼마나 뚜렷한가.

『속기계』는 우리의 얼굴이다. 모든 속기인들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얼굴로 만들어 보자고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회무일지

-1987년도-

- 1. 12~1. 31 제39회 동계 속기강습
- 3. 21 제134차 이사회
- 3. 26 제20회 정기총회
- 4. 9 법인정기보고서 제출(문화공보부)
- 7. 1 제135차 이사회
- 7. 11~7. 17 제37차 국제속기타자연맹총회 참석
- 7. 20~8. 8 제40회 하계 속기강습
- 12. 4 제136차 이사회
- 12. 8 제137차 이사회

속 기 계

제28호

1988년 4월 일 발행

발행인 : 박 권 흠
편집인 : 조 우 석

사단 대한속기협회
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1-1

Tel : 788-2471~6

<비매품>

부산 현대의회속기학원

원장 : 김 혜석 (金 惠碩)

- * 국회속기사양성소8기졸
- * 국회속기사 5년

부산진구 범천동 870-5
(범내골로타리 미성빌딩2층)
Tel 68-3795

축 개 원

국회속기사양성소동문회

'46년 창안 발표된
정통 고려속기교육처!

속 기

- ① 수료후 : 국회 각행정부처 언론정보기관
외국은행 대기업체등으로 진출
 - ② 활 용 : 회의 취재 강의 좌담 강연
비서 설교 방송 개인기록등
- ※ 성적우수자는 우선 취업 및 부업 알선

 **官認 高麗速記學院**

(특허청 등록상표 제7099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6가 1 - 15
전화 : 679 - 7114
679 - 7115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3 - 189
전화 : 312 - 9489
392 - 5373

속기사 이미정사무소

- 법정용 비밀테이프 녹취
- 주주총회 및 각종회의록 작성

대한 속기 교습소

- 46년 창안된 정통 고려속기 교육
- 개강 : 매주 월요일
- 깨끗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
- 개인별 성실한 책임지도

각종 특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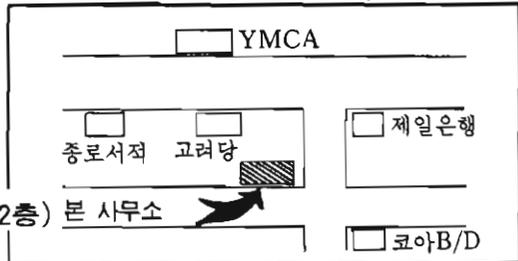
국가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는

- 1) 각종 부업알선 (시간당 10~13 만원)
- 2) 수강료 혜택 (30%~100% 면제)

입학상담 ☎

732-4029

서울 종로구 관철동18-1
(일석빌딩2층)



(종로2가 고려당뒤 스마일관광2층) 본 사무소



東邦速記40주년!

東邦速記가
창안 4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헌국회가 개원되고 나라 이름이 大韓民國으로 결정된 1948년,
東邦速記가 창안, 저술발표되어 記錄報國의 棟樑을 길러온 지도
어언 40년.

그간 희열과 환희, 고난과 시련의 세월 동안 全速記人들의 격려
와 성원, 질타와 편달 속에 東邦速記는 오늘도 速記人生의 외길
을 갑니다.

東邦速記는 앞으로도 記錄報國의 産室로서 더욱 精進하여 전국
速記人들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創案者 李東根外 同門一同

학원 : 종로 765-4266 청량 965-8222 남영 701-8222
수원 (0331) 5-4944 성남 (0342) 2-0095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 하지 아니한다.
-